

제4기 옴부즈만 위촉 및
1차 회의

2022. 8. 10.(수), 14: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2022. 8. 1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정식 위원장님과
4기 옴부즈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6년도에 출범
하였습니다.

옴부즈만 1기는 그림자규제 정비 등 “금융행정 개선”에,
2기 이후에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239건의 제도개선 건의사항들을 심의하였고,
소비자보호과제 76건, 규제개선 과제 42건 등 118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4기 옴부즈만 위원님들께서도

금융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
당국의 정책에 대해 제3자의 시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II. 4기 옴부즈만 운영방향

① 주요 금융정책의 집행 감시·점검기능 추가

우선, 4기 옴부즈만은 기존의 “규제 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에 더하여, “주요 금융정책의 집행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최근 금융산업구조는 복잡·다원화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환경의 변화나 설계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옴부즈만 여러분들께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소통반의 현장점검, 필요한 경우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여,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과 함께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규제감시 · 금융소비자 보호역할도 지속

아울러 ombudsman의 기존의 규제 감시,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규제혁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상시 규제개선 감시기구로서 ombudsman은, 현장소통반 등을 통해 규제혁신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 성과확산, 환류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간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되었던 “현장메신저*”의 활동을 재개하는 등 ombudsman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총 7개 그룹(소비자단체/소비자/법인/금융사 직원 등 4개 계층별 그룹 및 청년·대학생/장년층/고령층 등 3개 연령별 그룹), 105명으로 구성된 6기 현장메신저를 새로 선임하여 소비자입장 제도개선 및 과제발굴 지원 예정

Ⅲ. 맺음 말씀

오늘 출범하는 4기 옴부즈만이 주요 금융정책 집행점검, 금융규제 개선, 소비자보호라는 3가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장소통반, 현장메신저 등의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옴부즈만 권고사항의 금융정책 반영 등 정책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옴부즈만 위원님들께서도 금융정책의 효과적인 집행과 금융규제 개선, 소비자보호를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시기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위원직을 수락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